

민·관 손잡고 아이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든다

저출산·청년인구 유출 문제 해결 위한 추진본부 출범식 공공돌봄 기반 구축·육아센터 기능 확대 등 과제 공개

광주시가 저출산·청년인구 유출 문제 해결을 목표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돌봄 정보제공을 위한 아이친구(1279) 센터 구축,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확대 등 대책도 공개했다.

22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추진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이용섭 시장을 비롯해 박미정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양정기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김미경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 각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추진본부'는 초저출산 및 청년인구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학 협력체다. 광주시 행정부시장,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

장, 광주시교육청, 자치구 부구청장, 전문가, 돌봄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광주시는 이날 출범식에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추진 과제도 공개했다.

공공돌봄 기반 구축을 위해 키움돌과 가족센터를 조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돌봄정보제공을 위한 아이친구(1279) 센터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기능을 추가한다. 내년 상반기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어린이들이 미세먼지 걱정없이 놀 수 있는 '키움돌'을 설치한다.

가족형태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내년까지 동·남·광산구 3곳에 조성한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추진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참석위원들, 시청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족센터에는 장난감 도서관과 돌봄 풀타임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해 함께 놀고, 함께 키우는 생활거점 돌봄 인프라 공간으로 활용한다.

다함께돌봄센터도 오는 2022년까지 모두 62곳에 설치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돌봄 공공성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방과 후부터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초등 아동을 돌보아주는 곳이다.

돌봄정보제공 기반 구축을 위해 여성가족재단에서 아이친구(1279)센터를 구축, 2020년 4월부터 운영한다.

이용섭 시장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추진본부는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학 협력체이자, 광주돌봄공동체 실현을 위한 광주시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사랑의 성금 광주도시공사(시장 노경수)는 지난 19일 보육시설 영신원과 장애인 봉사단체 곰두리봉사회를 방문해 어린이들과 봉사자들을 위문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광주시 농기센터, 농촌진흥사업 '최우수기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2019년도 전국 농촌진흥사업 평가'에서 특광역시 최초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156개 농촌진흥기관 가운데 농업 기술보급 성과와 대내·외 평가, 종합만족도 등을 심사해 해마다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정보통신기(ICT) 스마트팜 시범포장 등 미래농업 선도 농촌지도기반 조성 ▲친환경농업 확산

빅데이터 활용 고밀도 미생물배양실 운영 ▲농업용 드론 스킵 등 농기계 전문교육 강화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앞서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조혜경 소장은 "직원들이 모두 노력해 이 같은 큰 성과를 거뒀다. 시대 변화에 맞춰 스마트농업을 선도해 광주농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공군 제1전투비행단서 통합방위협의회

광주시 안보·안전현안 논의

광주시는 20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이용섭 시장 주재로 '2019년 4분기 광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시장을 비롯해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권오석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 소영민 31보병사단장, 장하연 광주지방법

찰정장 등 지역통합방위위원회와 김상훈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이동률 한국가스공사 지역본부장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안보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내년도 안전관리계획 및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부대제행사로 T-50, F-5 전투기 소개 및 탑승체검도 진행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광주시 4분기 방위협의회 참석자들이 공군 훈련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치공원에 친환경 전기열차 달린다

1.2km 구간 48인승 2대 운행

광주 우치공원에 친환경 전기열차가 운행된다.

광주시는 21일 우치공원 정문 광장에서 이용섭 시장과 박미정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전기열차 개통식'을 개최했다.

전기열차는 48인승으로 우치공원 정문에서 중앙광장까지 왕복 1.2km 구간 운행된다. 전기열차는 2대가 운행되며, 요금은 편도 1000원이다. 광주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기존 마주보는 좌석 배치를 탈피해 한 방향으로 구성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전기열차는 지난 1991년부터 운행해 온 패밀리열차를 대체하게 돼 매년과 매년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치공원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공원 활성화는 물론, 광주시의 친환경 정책 선도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섭 시장은 개통식에서 "친환경 전기열차가 공기산업 선도도시 광주,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시 광주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이다"며 "우치공원을 시민들과 아이들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호남 최고의 테마파크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광주소방 성탄전·연말연시

23일~1월 2일 특별 경계근무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시민이 안전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2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경계근무 기간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과 소방차, 구급차 등을 동원해 ▲재난 초기 대응태세 구축 ▲24시간 화재예방 감시체계 구축 ▲긴급 출동 대응 태세 ▲응급환자 이송대책 마련 등 각종 재난 사고에 신속 대응한다.

오는 31일 타종식이 열리는 5·18민주광장과 해맞이 명소인 무등산, 금당산, 어등산에 소방차와 구급차,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로 했다.

119신고 폭주, 고장에 대비해 임시 수보대(신고 접수대)와 상황근무차 등 장비와 인원을 확보한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세계수영대회 빛낸 봉사정신 국제대회 봉사로 이어간다

통역·의전 등 679명 구성

빛고을글로벌봉사단 발대식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이 '빛고을글로벌봉사단'으로 국제대회 봉사를 이어간다.

광주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빛고을글로벌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빛고을글로벌봉사단'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인적자원 레거시(유산) 사업이다. '빛고을글로벌봉사단'은 대회 기간 통역, 경기보조, 의무, 의전, 시상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 67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수영대회 전체 봉사자(3309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봉사자들이다.

10대 53명(7.8%), 20~30대 194명(28.6%), 40~50대 186명(27.4%), 60대 이상 246명(36.2%) 등 연령별 고른 참여율을 보였다. 봉사단원들에게는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자원봉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각종 행사소식과 광주안팎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자원봉사 온라인 플랫폼'은 봉사를 원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꼭 맞는 일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처에서는 원하는 자원봉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양방향 플랫폼이다.

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내년 초 '글로벌

번들런티어아카데미'를 신설, 국제 매너 등 소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제행사와 대규모 행사에 단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광주에서는 5월 국제테니스대회와 국제양궁대회, 11월 국제배드민턴대회 등 3개의 국제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회마다 20여 개국 300여 명 이상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규모다.

이용섭 시장장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자원봉사자들의 열정과 함께 힘입어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졌다"며 "빛고을글로벌봉사단원 한분 한분의 소중한 재능이 광주의 세계화를 견인하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북구, 빅데이터 분석 지역별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광주시 북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주민 건강관리에 나선다.

북구는 구민의 건강위험요인을 발굴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건강정책 수립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북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5개년 의료이용지표와 연구자료(2014년~2018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동별 ▲건강관리 수준 ▲만성질환현황 ▲치매현

황 ▲사상장병 건강현황 등 4개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기존 북구의 건강관리 수준은 양호하나 분석의 근거가 되는 세부 5종의 지표 중 대사증후군 발견율과 북부 비만율이 다소 높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성질환현황은 세부 9종의 지표 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당뇨병 등 순으로 많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